

중국 고전 산문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 모색

李承信*

< 목 차 >

1. 들어가며
2. 중국 고전 산문 분야의 국내 연구 상황
3. 연구 시각의 확대와 독자성 추구
4. 구체적인 연구 방법의 예시
5. 나가며

1. 들어가며

중국 고전 산문의 연구 영역과 범위는 개념 설정에서부터 문학성 여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다단하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중국 문학사 및 문학 연구 분야에서 엄연히 중국 정통 문학작품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부단히 발전해오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중국 고전산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성찰하고 향후 연구자들과 함께 중국 고전산문의 가치와 의의를 더욱 크게 발현하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중국 고전 산문은 각 대학 중문학과에서 기본 소양으로 다루는 학과목이며 문

학사마다 정통 문학으로서 매우 중시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국은 물론 국내 중국문학 연구자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에 기초한다면 응당 그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성과나 방법론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역대의 훌륭한 작가들의 몇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대다수를 이루며 연구 방법론 또한 그리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명작들에 대한 감상 및 분석은 매우 많이 있지만 흔히 ‘散文’이라는 범주 안에 속한 대량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일개 연구자로서 연구 시각의 확대와 한국의 중국 고전 산문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고자 한다.

2. 중국 고전 산문 분야의 국내 연구 상황

중국 내 고전산문 연구는 여타의 장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부진한 편으로 국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에서 출판된 산문관련 선집류²⁾ 제외한 연구서로는 문체론, 산문통론, 산문사, 산문미학, 산문감상사전 등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 중국의 고전산문 연구 개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개념 범주 방면에서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주요 작품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되어 있다. 소위 명편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며 문예 이론의 기준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연구자들이 존재하며 주로 교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내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극소수의 산문연구자, 원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이론서의 부재 등은

* 高麗大 中國學研究所 研究教授

1) ‘중국 고전 산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용어상에 있어서 ‘古代’를 사용해야 할지 혹은 ‘古典’을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韻文’과 ‘散文’으로 구별할지 ‘시’, ‘소설’, ‘산문’, ‘회곡’ 이란 문학 장르의 개념으로서 구별할지 등의 논의가 끊임없다. 다만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중국문학사 내에서 분류한 장르적 개념의 ‘散文’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譚家健의 「四十年來古典散文選本簡目」(『中國古代散文學會簡報』 第1期)에 의하면 歷代散文綜合選本 40種, 歷代散文分類選本 143種, 斷代散文選本 95種, 作家와 作品의 選注 86種 등이 있다.

고전산문 연구자들의 반성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중국 고전 산문 연구 분야에서 나온 학위논문들을 정리하고 향후의 산문 연구의 방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³⁾

- 일인 작가 혹은 작품 중심의 포괄적 연구
- 산문 작가의 문학 이론 및 사상에 중점을 둔 연구
- 작품의 문학성 규명을 위한 문체별 연구
- 역사·철리 산문 작품의 문학성 입증을 위한 연구
- 기타

이에 의거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고찰해 본다.

먼저, 개개인의 산문 작가 혹은 그의 작품에 천착하여 포괄된 연구가 진행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논문

- 강경범, 「원평도 산문 연구」, 연세대학교, 2001.
- 이성호, 「진사도 산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1999.
- 박경란, 「귀유광 산문 연구」, 연세대학교, 1998.

석사학위논문

- 강민경, 「『歸田錄』校釋」, 연세대학교, 2007.
- 김춘희, 「이지 재평가를 위한 몇가지 고찰」, 전북대학교, 2006.
- 김윤희, 「도연명 산문 연구」, 울산대학교, 2006.

3) 국내의 중국 고전 산문연구 현황에 관한논문으로는 권석환 교수의 「국내 중국 고전 산문연구사 검토」(고문연구, 1998)가 있다. 이 논문에서 1945년 이후부터 1998년 2월까지의 중국 고전 산문 관련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소논문을 검토한 바 있으며 해당 목록이 부록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 이후의 자료에 대한 정리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김숙향, 「장대의 『도암몽역』 연구」, 고려대학교, 2005.
- 곽선화, 「조조 인물 연구-그의 시문 분석을 통하여」, 공주대학교, 2005.
- 이병노, 「양계초 산문 연구」, 중앙대학교, 2000.
- 천정왕, 「왕안석 산문 연구」, 한양대학교, 2000.
- 신정수, 「이백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1998.

이전의 중국 고전산문에 대한 연구가 『古文眞寶』나 『古文觀止』에 수록된 문장들을 중심으로 한 고문가들의 문장에 치중하였다면 최근 10여 년간의 연구 경향은 변화의 양상이 보인다 하겠다. 권석환 교수의 「국내 중국 고전 산문연구사 검토」(고문연구, 1998)에서 분석된 바, 唐宋 고문가들의 문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는⁴⁾ 다른 상황이라 하겠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오히려 명청대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당송대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산문 작가의 문학 이론 및 사상에 중점을 둔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사학위논문

- 김희성, 「중국번의 고문이론 연구」, 전남대학교, 2006.
- 손다옥, 「유종원 산문의 '탁물유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6.

석사학위논문

- 복대형, 「『좌씨전』 사평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공주대학교, 2007.
- 전지연, 「왕안석 정치 사상 연구」, 울산대학교, 2006.
- 한선규, 「이몽양의 문학 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2006.
- 최선덕, 「순자의 교육사상 연구」, 울산대학교, 2006.

4) 1998년까지의 국내 중국 고전산문 연구는 지나치게 당송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의 석·박사 논문을 살펴보면 韓愈관련 8편, 柳宗元 관련 10편, 구양수 관련 5편, 三蘇 관련 10편, 증공 관련 1편, 왕안석 관련 1편 등이 있다. 또한 '古文'과 '고문운동'의 명칭 및 기원문제, 고문 운동의 중국사상적 의미, 古文과 駢文의 관계 문제, 文과 道의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선진양한 산문가운데에서는 주로 『莊子』와 『史記』 등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며, 산문 안의 여러 체제 가운데 우연문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다. 명청대의 논문으로는 주로 소품문과 동성파인 요내와 방포에 관한 몇 편이 있을 뿐이다.

송귀란, 「소식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도불사상 고찰」, 경희대학교, 2005.
 박민희, 「한유산문의 정치사상 연구」, 부산대학교, 2005.
 김진힐, 「맹자의 육경관 연구」, 연세대학교, 2005.
 차영익, 「소식 경론 연구」, 고려대학교, 2003.
 여정연, 「육기 〈문부〉의 문학론 연구」, 고려대학교, 2003.
 권은영, 「『사기』를 통해 본 사마천의 문학 비평」, 숙명여자대학교, 2003.
 최재훈, 「동중서의 친인합일 사상 연구」, 중앙대학교, 2001.
 최미영, 「주희 문론 연구」, 공주대학교, 2001.
 송희정, 「『문심조룡』 문체론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1.
 강민정, 「조비의 문기론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0.
 한재환, 「사마천의 사 관념과 입언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2000.
 윤태영, 「소식문학 창작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
 김미수, 「장자 문학이론 연구」, 단국대학교, 1999.
 홍개운, 「고염무의 문학관 연구」, 단국대학교, 1999.
 강택구, 「주자 문학이론 연구」, 충남대학교, 1999.

이는 文·史·哲의 통합적 시각에서 작가의 문학관, 사학관, 경학관, 정치관 등의 사상을 연구한 것으로 최근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은 산문 작품의 아름다운 예술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문체별, 혹은 수사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들을 살필 수 있다.

박사학위논문

이승진, 「구양수 『거사집』의 산문 문체 연구」, 고려대학교, 2003.
 임춘영, 「유종원 산문의 예술적 특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3.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소식 우언의 해학성 연구」, 고려대학교, 2006.
 박은경, 「유종원 우언 연구」, 동국대학교, 2006.
 김희경, 「귀유광 가정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2005.
 오금순, 「귀유광의 여성소재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2004.

이은순, 「유종원 기문의 미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4.
 고도옥, 「구양수 '서발문' 연구」, 전북대학교, 2004.
 고명주, 「소식 잡기문의 문예 미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3.
 박미건, 「서하객의 명산유기 연구」, 부산대학교, 2003.
 고명주, 「소식 잡기문의 문예미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3.
 홍은빈, 「유종원 산수기유시문의 경계연구」, 고려대학교, 2002.
 김영숙, 「명대 송림 우언 분석 및 역주」, 상명대학교, 2003.
 송태명, 「원광도 척독 연구」, 고려대학교, 2002.
 정애경, 「당송팔대가의 대각정기역주」, 상명대학교, 2001.
 채성숙, 「유종원의 우언문 연구」, 전남대학교, 2000.
 안예선, 「소식 부의 설리성 연구」, 고려대학교, 2000.
 박형수, 「구양수 기류산문 연구」, 전남대학교, 2000.
 김인수, 「육기 『문부』 연구」, 전북대학교, 2000.
 정숙현, 「駢文연구」, 한양대학교, 2000.
 유광종, 「송대 산수유기 역주 및 고찰」, 상명대학교, 1999.
 김병애, 「소식 산문의 문예미 연구」, 국민대학교, 1998.
 이정은, 「귀유광 기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이는 아름다운 문학성을 연구한 것으로 대체로 '游記'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사실적인 기행과 부드러운 서정의 결합을 통해 문학성을 발현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척독, 우언, 서발 등의 형식상의 '문체'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역사서와 철학서의 문학성을 연구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

이준호, 「『장자』의 우언예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권아린, 「『전국책』 우언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양중석, 「『사기·열전』의 중출사건 서술양상」, 서울대학교, 2005.
 김혜원, 「『장자』 우언의 문학성 연구」, 한양대학교, 2004.
 김미애, 「『장자』 『한비자』의 우언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2004.

- 이행순, 「맹자 비유법 연구」, 국민대학교, 2003.
 이기훈, 「『국어』의 서술방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신은주, 「순자산문 연구」, 충남대학교, 2000.
 이인경, 「장자 우언의 문학성 연구」, 단국대학교, 1999.
 하을봉, 「사기 중의 소설적 특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9.
 박송길, 「맹자 문학수사 연구」, 충남대학교, 1999.

이는 역사서와 철학서 등의 문학성에 논지를 두고 문학적 수사 기교와 서술 방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언 방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 기타 논문이 있다.

- 박한규, 「계문의 『고문진보』 전집 강록 고석」, 영남대학교, 2005.
 이상의, 「『공양진』과 『좌전』의 해석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2004.
 안영호, 「『춘추공양전』 해석 체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박수미, 「한유의 고문운동 연구」, 경기대학교, 2002.
 한종진, 「주희의 초사학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2001.
 이상현, 「중국 역대 도원 시문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공주대학교, 2000.
 민정기, 「만청 시기 상해 문인의 글쓰기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이영섭, 「장학성 『문사통의』의 삼교와 경해잔석」, 연세대학교, 1999.

이는 주로 경전산문에 대한 연구로 경전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엿보인다 하겠다.

3. 연구 시각의 확대와 독자성 추구

20세기 이후 학문의 분업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어문학부

휘하에 ‘중어중문학과’라는 이름으로 어학과 문학 분야의 영역별 연구에 무게를 실어왔다. 그러면서도 중문학 연구자들에게는 항상 ‘文·史·哲’의 연계가 절실함을 강조하여 왔고 실제로 그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도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학문의 연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으며 그 연구 성과 또한 그리 내세울 정도는 아닌듯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방 후 50여 년이 넘는 중국학 연구 분야에서 국내 연구는 어문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각 분야에서 실용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로 인해 현실적인 생산력을 갖기 어려운 인문학의 소위 ‘위기’ 의식은 중국 고전연구자들로 하여금 위축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서구 논리의 바탕에서 논리성과 체계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동양학, 특히 중국학 연구를 서양 학문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거기에 중국 고전산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애초에 문학이니, 사학이니, 철학이니를 분간하지 않는 오랜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문·사·철이 혼용된 형태인 작품을 대상으로 굳이 ‘문학성’이란 편협한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역대 중국 고전산문 작품들을 살펴보면, 『상서』를 기원으로 한 經書, 제자백가들의 사상철학서와 역사가들의 史書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모든 문학사에서 이를 뛰어난 산문 작품으로 그 가치와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겠지만 그것들의 가치는 비단 문학 뿐 아니라 그것에 숨겨진 다양한 사상 이론과 심지어는 정치학, 경제학, 식물학, 동물학, 금석학, 서지학 등 제학문의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평가된 가치일 것이다. 다른 문학 장르도 그렇지만 특히 고전 산문의 경우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강하다고 본다.

이에 그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아도 편협한 의미의 아름다운 문학성을 논한 연구와 함께 작품 혹은 작가의 제학문적인 성격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다. 어문학에 편중된 중국학 연구 시야를 더욱 확대시키고 문학성에만 비중을 두지 않고 훨씬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중국 고전 산문을 가장 진실에

가깝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진실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중국 고전산문의 특징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고전산문 관련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논문 안에 ‘散文’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다. 혹은 장르적 차원에서 시, 소설, 희곡 등과 구별되는 장르로, 혹은 韻文과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고전 산문의 범주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동시에 현대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혼동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散文’ 역시 개념 정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일단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散文’이란 장르를 연구할 때 여타 장르와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국 고전 산문의 오랜 연원과 중국 고유의 고전 산문의 범주 및 특성을 고려하는 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고전 산문은 이미 『시경』과 때를 같이하여 『상서』를 기원으로 오랜 기원을 두고 발전해 왔으며 이는 서구의 산문이 18세기에 소설이란 장르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발전 시기와 역사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매우 상이하다. 중국 고전 산문은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학서인 동시에 철학서, 역사서인 고전 산문 작품은 정치, 경제, 지리, 문화, 서지, 금석 등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원적인 요소가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다. 또한 허구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사실성과 간결미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중국 고전 산문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이른 바 ‘산문 정신’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근거하여야 한다. ‘산문정신’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외형적 규범이나 낭만적 감상, 시적 감각을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자유로운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문학상의 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요지는 현실의 객관성에 있다. 그리고 그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논리적인 사실적 근거가 필요하며 허구와 상상과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곧 서구 산문의 주축을 이루는 소설과의 경계점이며 중국 고전 산문의 의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산문정신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그 장르적 특성과 고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구체적인 연구 방법의 예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이미 중국 고전산문 연구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시도되어 왔으며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각고의 노력을 살필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실제로 1998년 6월 ‘한국중국산문학회’가 발족되어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번역과 교학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대학 중문과에서 필수 과목으로 고전 산문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수가 극히 적은 까닭에 외국 문학으로서의 산문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원문 독해의 난관에 부딪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한역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고전 산문 연구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연구 방법 또한 점점 다양화되었다. 최근 1998년 이후의 소논문들을 중심으로 산문 연구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연구자 간의 도움을 청해보고자 한다.⁵⁾

고전 산문 작품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은 원전 독해 능력이다. 원전을 읽고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작품을 대하는 독자의 태도이다. 여기에 중점을 둔 연구 논문은 대체로 작가의 문인식과 정치 사상, 철학 사상, 경학 사상, 역사 사상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 작품의 저작 동기와 관련되어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유추해나가는 작업으로서 작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원전 독해와 그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한 작가 혹은 한 작품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5) 이미 최근의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언급을 했고 학위논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구 내용이 소논문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최근의 소논문들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집중 연구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몇 논문들을 소개해본다.

- 이강범, 「원평도 「상정」 연구」, 한국중문학회, 2002.
- 권석환, 「중국고전산문의 중세적 典範(Canon)에 관한 연구」⁶⁾, 한국중문학회, 2001.
- 강경범, 「원평도의 「병사」 분석」, 중국문학연구회, 2001.
- 구교현, 「이탁와 이덕무의 문학론 비교 연구」, 중국어문학연구회, 2000.
- 오수형, 「조조 산문 시론」, 한국중국어문학회, 1998.

물론 상기한대로 주제를 탐구하거나 작가의 저작의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산문 연구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산문의 개념 범주 혹은 산문의 세부 문체 연구를 통한 방법이 있다. 훌륭한 작품은 충실한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형식을 겸비한다는 의미에서 작품의 문학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 즉 체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중국 고전산문에 포함된 다양한 각종 문체의 형식을 통한 연구로서 문체적 특징과 함께 내용의 골자를 위주로 고찰하는 방법이다. 혹은 그 반대로 내용 안에서 문체의 적합 여부를 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간 국내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姚鼐의 『古文辭類纂』에서 분류한 문체의 기준을 전범으로 삼았다. 論辯, 序跋, 奏議, 書說, 贈序, 詔令, 傳狀, 碑誌, 箴銘, 頌讚, 辭賦, 哀祭 등 13개의 체제로 분류한 것을 선호하였다. 요네의 분류법은 산문이 발전해 온 과정과 그 성격 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는 있지만 혹자에 의해서 미비한 점이 지적되곤 한다. 그 하나는 散文 안에 辭賦의 형식을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六朝의 駢文을 제외하고 있는 점으로, 이는 요네가 지나치게 桐城派 입장을 고수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중국고대산문사전이나 감상사전 등에서는 요네의 분류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駢文 등의 문장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이 논문에서는 당송 산문이 중국 고전 산문의 전범이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과 그 전과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 문인지식인층의 형성과 유불도 사상의 통합과의 관계 속에서 산문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주혜, 「중국 고전산문에서의 ‘설체(說體)’」⁷⁾,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 홍승직, 「유종원 사부의 패러디 구조 고찰」, 중국어문연구회, 2002.
- 김종섭, 「원호문의 비지류 산문에 관한 연구」⁸⁾,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 홍승직, 「사부에 나타난 유종원의 우환 의식」, 중국어문연구회, 2000.
- 김계태, 「『적벽부』와 『후적벽부』의 비교 분석」,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 최형욱, 「양계초의 문체개혁과 그 산문의 특징」,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 박영희, 「駢儷文의 영상적 표현 양상 및 특징」⁹⁾, 중국어문학연구회, 2000.

또 하나는 산문 작가에 따라 선호하는 문장의 체제가 각기 존재하므로 작가가 선호하는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작가가 요네가 언급한 13개의 체제를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기 상이한 문학이론을 정립하여 작마다 산문의 체제와 형식적인 특징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유종원의 경우 그의 우언이 집중 연구되는 추세에 있으며 다음의 소논문들을 소개한다.

- 오수형, 「『육리자』의 특징과 중국 우언 발전사상의 의의」, 한국중국어문학회, 2003.
- 남철진, 「中唐 우언의 장르 분화 연구」,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 남철진, 「유종원 우언 형상소조법 연구」,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이 외에 작품의 동기나 표현 방식 등을 기준으로 論說 혹은 議論 산문, 記敍 혹은 敍事 산문, 抒情 산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작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저작 의도에 따라 일정한 체제를 선택하므로 체제의 특징은 작품의 표현 방식이나 언어적 특징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위 삼자는 일정하게

7) 이 논문에서는 위진남북조와 唐代의 ‘說體’ 산문의 발달 과정과 문장 분류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8) 이 논문에서는 원호문의 비지류 산문의 창작 동기와 그 내용과 표현 기법 상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9)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駢文에 대한 평가들을 종합 정리하고 그것의 시정각 이미지의 연쇄 작용과 회선식의 전개방식을 통한 영상 중심적 사유방식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구획하기에는 불충분하나 대체적인 중점 특징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함께 쓰인 것으로 그 뛰어난 문학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상술한 학위논문들 가운데 이 방법을 수용한 논문들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남철진의 풍유문의 범주와 유형에 관한 고찰(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등에서는 수사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며 학위논문 가운데 이러한 분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은 작품의 문학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수사 기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이다. 문장 안에서 작자의 의도를 부각하기 위한 수법으로 혹은 작품의 미적 완성을 위한 시도로서 문단 간의 관계, 문장 간의 관계, 글자 간의 관계 등의 변화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서정적, 논리적 혹은 서사적 효과를 느끼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주로 산문의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평가하는 데 용이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용표, 「소리로 표현된 중국 산문의 생명력」 10), 한국중어중문학회, 2004.
 장영백, 「중국 고전산문에 나타난 ‘風’의 성격과 역할 연구」 11),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오수형, 「당대의 산문미학 연구-한유와 유종원을 중심으로」 12), 한국중국어학회, 2001.
 백승엽, 「『사마상여열전』과 『풍월서선정』의 서사 기법」, 한국중문학회, 2001.
 박성진, 「『좌전』 전쟁묘사시론」, 한국중문학회, 2001.
 김중성, 「중국의 선진서사산문 『전국책』 연구」 13), 한국논역학회, 2000.
 이제우, 「『磬律』과 중국 고전 산문의 감상」 14), 한국논역학회, 2000.

10) 이 논문에서는 문장 해석 등에 중점을 둔 산문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일견을 제시한 바, '소리'의 본질적 특성인 내면성과 결합성을 인식하고 낭송을 통해 고전산문을 접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11) 이 논문에서는 「蘭亭集序」, 「歸去來辭」, 「岳陽樓記」, 「秋聲賦」, 「前·後赤壁賦」등에 나타난 '바람'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논의하고 있다.
 12) 이 논문에서는 '산문'과 '산문미학'의 범주와 연구대상, 고전 산문미학의 전개와 唐代的 산문미학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례로 한유와 유종원의 산문미학을 심미와 공리의 결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3) 이 논문에서는 『전국책』의 사상 내용과 인물 묘사의 예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삼단논법을 활용한 비유와 대비, 모순적인 관계와 주변 인물을 통한 핵심인물의 부각 등의 구체적인 예술 수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김용표, 「페미니즘 시각에서 고찰한 중국 산문의 陰柔 풍격에 대한 연구」 15), 한국 산문학회, 1998.

다음은 중국 고전 문학 가운데 역사, 철학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산문 분야이므로 그 내용 안에서 자연스레 작가의 현실인식, 역사의식 등이 잠재되어 있음에 초점을 두는 경우이다. 따라서 연구 논문 가운데 작자의 사상 및 철학에 관련한 논의가 역사, 철학, 정치, 문화 등의 분야와 접목되어 진행된다. 자칫 피상적이기 쉬운 단점이 있지만 중국 고전산문 고유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산문을 제학문의 확대된 시각으로 고찰하여 중국 고전 산문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현해낼 수 있는 논문들로 다음과 같다.

박경란, 「전검익의 사학 주장」,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장영백, 「변화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과 공자 사상의 핵심」,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박경란, 「전검익의 사학주장」,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백승도, 「『장자』 至人論: 새로운 인간형을 찾아서」,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박성진, 「『좌전』의 사상경향」, 한국중문학회, 2000.
 이강범, 「『國朝漢學師承記』를 통해 본 乾嘉시기의 漢宋之爭과 그 실상」,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김중섭, 「三蘇의 史論 산문의 비교 연구」 16), 한국중국어학회, 2003.
 권석환, 「韓·中中世知識疏通之研究」, 한국중문학회, 2002.
 박성진, 「韓·中 중세지식소통에 관한 研究」, 한국중문학회, 2002.
 백승도, 「언어와 사유」,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김경동, 「略論魏晉文人名士之任誕行爲」, 한국중문학회, 2001.
 권석환, 「중국인의 바보관념과 중국산문에 나타난 우인형상」 17), 한국중문학

14) 이 논문에서는 '文氣'와 磬律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성률로써 중국 고전산문을 감상하는 실례를 들어보았다.
 15) 이 논문에서는 '陽剛'과 '陰柔'의 남성적 여성적 기호를 설명하고 시각적 측면의 평이한 문자와 청각적 측면의 아름다운 선율을 지닌 산문을 여성적 기호로 해석하고 있다.
 16) 이 논문에서는 三蘇 史論의 주제의 표현 방식, 문답체의 활용 방식, 그들의 사상적 경향, 權道와 해석의 문제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17) 이 논문에서는 중국 산문에서 나타나는 愚인의 형상과 지배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한 바, 우인이 적응과 극복의 역설적 이중 관념을 지닌 지배 문화와 개체의 상호 우위와의 화해 속에서 표출된 형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회, 2000.

이채문, 「선진제가의 『詩經』 인용 특색」, 한국중문학회, 2001.

다음은 원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측면에서 중국 고전산문의 번역 작업에 대한 고민을 논문화한 경우이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할 정도로 원전에 충실하면서 언어가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의 작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산문에서도 아름다운 美文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함께 산문이 지니는 운율미, 대조미, 간결미 등을 수반한 수사적인 효과까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이재우의 「중국산문 한역의 현황과 과제」(중국어문논역학회, 2002)가¹⁸⁾ 있고, 이 외에 초장르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 논문들도 있다.

김지영, 「한유 시의 산문적 특징에 대한 고찰」¹⁹⁾, 한국중국어학회, 2006.

박영희, 「한중 초등학교 교과서 소재 고전 산문 비교 연구」, 어문학 교육, 2003.

이종한, 「한유 산문의 시적 특징에 관하여」, 한국중국어학회, 1998.

김용표, 「한국대학에서의 중국고전산문 교학에 관한 일고찰」²⁰⁾, 한국중어중문학회, 1998.

상기한 몇 가지의 연구 방법들은 실질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다분 중복적이며 어느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편협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혼용하거나 되도록이면 모두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다.

18) 이 논문에서는 중국 산문의 개념과 범위 문제, 번역의 목적과 대상 독자, 중국 산문의 韓譯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19) 이 논문에서는 한유 시의 의문화와 游記體, 敘事體, 辭賦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을 중심으로 그 산문적 특징을 논하고 있다.

20) 이 논문에서는 '漢文'과는 동일하지 않은 차원의 중국 고전산문의 교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특히,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체득할 수 있는 문학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5. 나가며

이상에서 국내 중국 고전산문 연구에 대한 연구 성과 및 방법을 검토해보았다. 70년대 국내 고전산문 연구가 개념과 범주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점차 산문 미학과 산문 감상으로 변화되는 단계를 거쳐 최근에는 연구자들의 확대된 시각과 다양화된 방법을 통해 연구의 심도가 더해지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중국 고전산문은 중국인의 사유방식을 매우 현실적이고 진실되게 담아내고 있으며 장르의 특성상 그 사실성과 문학성, 나아가 정치, 경제, 역사, 철학, 문화 등의 총체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그간의 어문학 분야 위주의 연구범주를 확장하고 현실성과 실용성의 특징을 수렴하는 것은 중국 고전 산문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서구인이 아닌, 중국인이 아닌 한국의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 확보와 연구 성과의 제고를 위한 행보에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參考文獻>

권석환, 「국내 중국 고전 산문연구사 검토」, 『고문연구』 제 11호, 1998.

오수형, 「조조산문 시론」, 『중국문학』 제30집, 1998.

이종한, 「한유 산문의 시적 특징에 관하여」, 『중국문학』 제30집, 1998.

권석환, 「國內 中國 古典 散文研究史 검토」, 『中國語文學論集』 제11호, 1999.

박성진, 「『左傳』의 思想傾向」, 『중국문학연구』 제21집, 2000.

권석환, 「중국인의 바보관념과 중국산문에 나타난 愚人形象」, 『중국문학연구』 제 21집, 2000.

구교현, 「李卓吾와 李德懋의 文學論 비교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제14호, 2000.

홍승직, 「辭賦에 나타난 유종원의 우환 의식」, 『중국어문논총』 제14호, 2000.

박성진, 「『左傳』 戰爭描寫試論」, 『중국문학연구』 제23집, 2001.

오수형, 「당대의 산문미학 연구-한유와 유종원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35집, 2001.

김종섭, 「원호문의 비지류 산문에 관한 연구」, 『중국문학』 제36집, 2001.

이채문, 「先秦諸家の 『詩經』 引用 特色」, 『중국문학』 제36집, 2001.

백승엽, 「『司馬相如列傳』 과 「風月瑞仙亭」 의 敘事 技法」, 『중국문학연구』 제23집, 2001.

김경동, 「略論魏晉文人名士之任誕行爲」, 『중국문학』 제36집, 2001.

권석환, 「중국고전산문의 중세적 典範 『Canon』 에 관한 연구」, 『중국문학』 제36집, 2001.

강경범, 「袁宏道の 『瓶史』 分析」, 『중국문학』 제36집, 2001.

최형욱, 「梁啓超의 文體改革과 그 散文의 特徵」, 『中國語文學論集』 제17호, 2001.

조미원, 「明末清初 士大夫와 庭園」, 『中國語文學論集』 제17호, 2001. 1.

백승도, 「장자 至人論 : 새로운 인간형을 찾아서」, 『中國語文學論集』 제18호, 2001.

박인성, 「유우석 시에 표현된 꾀적극복 양상 - 유종원과의 비교를 곁하여」, 『중국어문논총』 제21호, 2001.

강경범, 「袁宏道 『觴政』 研究」, 『중국문학연구』 제24집, 2002.

권석환, 「韓·中中世知識疏通之研究」, 『중국문학』 제37집, 2002.

박성진, 「韓·中 中世知識疏通에 관한 研究」, 『중국문학연구』 제24집, 2002.

전일주, 「20세기 初期의 韓國字典의 序跋文」, 『중국어문학역총』 제24집, 2002.

남철진, 「柳宗元 寓言 形象塑造法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제19호, 2002.

김계태, 「『赤壁賦』 와 「後赤壁賦」 의 비교 분석」, 『中國語文學論集』 제19호, 2002.

백승도, 「언어와 사유」, 『中國語文學論集』 제19호, 2002.

남철진, 「諷諭文의 範疇와 類型에 관한 考察」, 『中國語文學論集』 제19호, 2002.

박경란, 「전겸익의 사학주장」, 『中國語文學論集』 제19호, 2002.

이주해, 「중국 고전산문에서의 說體」, 『中國語文學論集』 제19호, 2002.

남철진, 「中唐 寓言의 장르 分化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제20호, 2002.

장영백, 「변화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관념과 공자 사상의 핵심」, 『中國語文學論集』 제20호, 2002.

홍승직, 「유종원사부의 패러디 구조 고찰 - 「유고황질부」 를 통하여」, 『중국어문논총』 제22호, 2002.

이강범, 「『國朝漢學師承記』 를 통해 본 乾嘉시기의 漢宋之爭과 그 실상」, 『中國語文學論集』 제21호, 2002.

이제우, 「중국산문 한역의 현황과 과제」, 『중국어문논역총간』 제9호, 2002.

장영백, 「中國 古典散文에 나타난 '風'의 성격과 역할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제21호, 2002.

오수형, 「『옥리자』 의 특징과 중국 우언발전사상의 의의」, 『중국문학』 제40집, 2003.

김종섭, 「삼소의 사론 산문의 비교 연구」, 『중국문학이론』 제3집, 2003.

박영희, 「한중 초등학교 교과서 소재 고전 산문 비교 연구」, 『어문학 교육』 제26집, 2003.

김지영, 「한유 시의 산문적 특징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 제49집, 2006.

< 中文提要 >

國內中國古典散文研究方面出發於散文概念與範疇部門, 經過散文美學研究與散文鑒賞的階段, 達到翻譯原文 散文教育方面等。最近研究人擴大自己的眼光而使用多曾的方法, 結果中國古典散文研究加深。

中國古典散文本來反映古代中國人的現實感覺與思維方式, 無文學性, 包括政治 經濟 歷史 哲學 文化等綜合學問的特徵, 以總體學問得研究。而融合文學·歷史·哲學, 考慮散文本面的現實性與實用性。這能夠發揚中國古典散文固有特性, 與現代或現代隨筆、西歐散文不一樣, 確立獨特研究範圍, 提高研究成果。

關鍵詞 : 文學、歷史、哲學、現實性、實用性、中國古典散文研究、散文美學研究、散文鑒賞、翻譯、散文教育

원고접수일	2007. 12. 12
심사일정	2008. 2. 5
1차수정	2008. 2. 27
게재확정	2008. 3. 7
출간	2008. 3. 30